



교단 설립 100주년 기념  
제96회기 총회 전도부 주관

# 전도세미나

주일학교 전도를 통한 한국교회 재건

국내전도 96-1 호

- 기간 2011년 11월 14일(월)~16일(수)
- 장소 강원 켄싱턴플로라호텔(☎033-330-5000)

Evangelism



## 알리는 말씀

---

1. 외출 시 방 열쇠는 꼭 프론트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부부 이외, 다른 분들이 필요함).
2. 세미나 일정(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호텔 내 객실, 부대시설 등에 대한 부분은 프론트(2층)로, 기타 행정적인 부분은 국내전도국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화요일(15일) 오후 일정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되, 프론트에 주변 관광지 자료가 비치되어 있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금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편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서로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도세미나

주제 : 주일학교 전도를 통한 한국교회 재건

기간 : 2011년 11월 14일(월) ~ 16일(수)

장소 : 강원 컨싱턴플로라호텔

인사말 / 전도부장 이석원 목사 .....	4
개회 예배 .....	5
육체의 남은 때를 / 총회장 이기창 목사	
특강 ① .....	10
어린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만들기 /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	
특강 ② .....	18
포스트모던 시대를 깨는 SOS 전도법 / 대영교회 최복규 목사	
저녁 예배 .....	24
다음세대를 세우자 / 꽃동산교회 김중준 목사	
새벽 예배 .....	26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 전도부장 이석원 목사	
특강 ③ .....	28
현장 전도의 이론과 실제 / 현장전도훈련원장 유승열 목사	
특강 ④ .....	38
주일학교 부흥의 모델링 - 사례 / 거창중앙교회 이병렬 목사	
특강 ⑤ .....	46
어린이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총무 변규정 목사	
저녁 예배 .....	60
사랑하는 자 / 사랑스러운교회 배만석 목사	
새벽 예배 .....	62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내 가슴에 / 영양서부교회 박병석 목사	
특강 ⑥ .....	67
다음세대를 위한 세 가지 전도 / 장지교회 홍승영 목사	
(극동방송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진행)	

## 주일학교 전도를 통한 한국교회 재건



요즘 하나님께서 산과 들과 거리마다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여 놓으신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2011년 한해도 실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것과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계획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양에 대해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묵상해봅니다.

특히 금번 회기 총회 전도부는 한국교회 재건을 꿈꾸며, 먼저 주일학교를 전도로 부흥케 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강사들을 모시고, 함께 고군분투하여 새로이 결단하고 다함께 부흥의 도약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아니 그 이상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간다면, 부흥을 다시금 꿈꾸어보고 만져볼 수 있는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와, 영적 리더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목양지에서 전도의 최대 사명을 구령의 열정으로 감당하면,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현상이 '되는 현장' 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귀한 말씀과 열된 강의로 도전과 성원을 보내주신 목사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부흥이 불꽃처럼 되살아나길 축복합니다.

2011. 11. 14.

제96회기 총회 전도부장 이석원 목사

인도 / 전도부장 이석원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520장 ..... 다같이  
기 도 ..... 전도부 서기 조종배 목사  
성경봉독 ..... 벧전 4:1~6 ..... 전도부 총무 정창수 목사  
설 교 ..... 육체의 남은 때를 ..... 총회장 이기창 목사  
총회소식 ..... 국내전도국장 황윤수 목사  
찬 송 ..... 498장 ..... 다같이  
축 도 ..... 전도부 회계 김기성 목사



찬송가 520장(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1.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2.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3. 언약하신 대로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후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베드로전서 4:1~6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죽하도다 4 이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찬송가 498장(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1.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2.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3.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후렴]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 육체의 남은 때를 (벧전 4:1~6) (에필로이폰 엔사르키)



개회예배 |

총회장 이기창 목사

본문은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애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필로이폰 엔사르키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의 나머지 삶을 뜻합니다. “남은 때”라 하였으니 그 끝날이 있다는 말씀이요, 그 남은 날을 소중히 살아야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여기간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 1.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4:1~3).

우리 예수님이 정욕, 음란, 방탕, 술 취함,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 등 나의 흉악한 죄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 육체 고통,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주님 몸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 지를 기억하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자 하십니다.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결은 도덕과 윤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룩입니다(1:17). 즉,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 사랑하기에 주님 너무 좋아서 죄 지을 생각은 꿈에도 없는 그런 성결입니다(2:8~9). 거룩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첫 조건이요, 천국에 들어갈 절대 조건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 좋아하시는 것은 성결, 싫어하시는 것은 불결입니다. 성결과 회개에 성공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니 기도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4:7).

마귀의 시험, 육체의 정욕을 꺾고 이길 방법은 기도 밖에 없습니다(벧전 5:8~9, 막 9:23, 9:29).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쳐 이기면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니다. 성도님들이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몸과 영혼에 새깁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협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연약을 이길 힘은 기도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무엇이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라 하셨습니다.(렘 29:11~13, 빌 4:6, 렘 33:3)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 멎으면 죽고 썩듯, 교회가 기도 쉬면 죽고 부패케 됩니다. 사도행전은 부흥행전입니다. 그러나 기도행전입니다. 28장 전 장에 기도 사역 없는 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도, 기적도, 선교사 파송도, 말씀의 능력도, 마귀 몰아내는 성시화운동도 모두가 다 그 뿌리는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 하였습니다.

기도한 것을,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도 많이 하면 없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딤후 4:4). 복 중의 복은 기도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사셨는데 우리 같이 무능한 것들이 어찌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 하셨습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 기도에 마귀 죽어나가고 기도 중에 성령 충만!입니다.

### 3.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작정하시고 택하시며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전도 때문입니다(마 28:19~20, 롬 10:15).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직 목적을 전도라 하셨습니다(막 1:38).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하였습니다(고전 9:16). 또한 부득불 할 일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일이라 하였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현안 사업이요, 최대의 중점 사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강권하여다가 사람을 아버지 집에 채우라 하셨습니다.

전도는 절대 게을리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영혼 구원 시간 분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음으로 영혼이 사망케 된다면 그 피 값을 전도하지 않은 네게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외와 아들 셋과 자부 셋이 구원 받았습니다.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단은 결코 전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미혹할 뿐입니다. 정통교회와 참된 신자만이 전도합니다.

전도는 의무일 뿐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결코 잊지 말고 삼시다(행 1:8).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 동시에 전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대로 기뻐하시는 교

회와 신자가 됩니다(눅 15:7). 현금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300만이라 합니다. 한 분이 한 분씩만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케 하면 600만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총 전도 체제로 가는 우리 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랑에 머물지 말고 오순절적 부흥을 사모하고 전방위 전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최대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귀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는 사업입니다(단 12:3, 행 8:7). 자나깨나, 먹으나 굶으나, 앉으나 서나 전도입니다. 전도는 참 신자 된 최대의 증거입니다.

교회의 존재가치가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소금과 빛이라 하셨습니다. 과연 전도가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에 전도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의 세상 살기는 빛진 자였습니다(롬 1:14). 우리는 얼마만큼의 빛을 졌을까요? 그 빛을 갠야만 자유한 영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힘썼던 바울을 생각합시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만날 때 “세상 살 동안 뭐하다 왔니?” 하고 물으시면 “전도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4. 성령의 권능에 매여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4:4).

우리 잔여 인생 성령님과 동행 동거의 삶을 삽시다(엡 5:18, 행 1:8, 10:38, 2:1~4, 4:31, 갈 5:22). 성령 충만 불 받으면 행 8:7입니다. 빌립의 사역 나도 합니다. 베드로의 능력, 바울의 역사 내게서도 나갑니다(그림자, 손수건, 앞치마). 성령 충만하면 여호와 랍과, 닛시, 이레, 삼마, 샬롬 축복입니다. 신통, 인통, 물통, 형통, 회복, 축복, 만복 다 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됩니다. 가을 바람에 단풍들듯 예수 물듭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해골이 여호와의 큰 군대 되고, 죽은 강이 살아나고, 치료의 광선이 비쳐 옵니다. 다니엘처럼 남의 잃은 꿈을 찾아 줍니다. 엘리사처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악신을 물러가게 한 다윗의 수금 찬송 나도 부릅니다. 옥터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잔피에 능하나 성령님은 지혜에 무궁하십니다. 사람이 마귀 속도를 따를 수 없으나 어떤 마귀라도 성령의 속도를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불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고전 2:10).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곳에 마귀와 죄가 타서 재 되고, 하늘문이 열렸으며, 큰 비 내려 죽은 땅이 다시 사는 헵시바 빨라 축복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여, 이 시대의 급선무는 성령의 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교회다운 교회(롬 14:17), 성도다운 성도 됩니다(고전 12:3). 기름 떨어진 차는 고물, 불 꺼진 등대는 암초요, 숨 떨어진 사람은 시체입니다. “세월을 아끼라”(엡 5:16) 하시고 난 후,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사랑에

폭 잠긴 사람 됩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각양 은사의 사람 되고(고전 12:4~11) 행복한 승리자 됩니다(시 23편).

## 5.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벧전 5:5~6).

겸손은 최대의 능력입니다(잠 22:4).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이고, 형제를 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잠 15:31),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잠 16:18) 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깊게 눌린 스프링이 높이 뛰어 오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물을 때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가 겸손이며, 셋째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수로보니게 여인) 하나님의 실세가 됩니다(이삭). 나아만은 겸손으로 구원 받았고, 바울은 겸손으로 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하면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딤후 1:15).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죽도록 겸손하면 축복과 능력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겸손이 최선의 지혜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되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쳐들어오고, 겸손하면 성령님이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 하셨습니다. 겸손하기 힘쓰면 하나님이 그의 후견자, 보호자, 목자, 양육자가 되어 주십니다(마 6:33). 겸손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 결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결정합니다. 인생의 잔여기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 어린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만들기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



11월 14일(월) 오후 3:10~4:40 |

사회 : 전도부 서기 조종배 목사

## 1. ( ) 시켜야 한다. - 다 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잘 할 수 있다.

예로부터 경기도 안성은 유기(鑪器)로 유명했다. 유기란 놋쇠로 만든 기물을 가리킨다. 특히 안성 유기가 다른 지방의 것보다 유명한 것은 서울 양반가들의 그릇을 도맡아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종류의 유기를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하나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이것을 '장내기' 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관청이나 양반가의 주문을 받아 특별히 품질과 모양을 좋게 만들었는데 이를 모춤(마춤)이라 하여 '안성맞춤' 이란 말이 생겨났다. 이제 이 말은 일반화가 되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릴 때 사용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수백 년에 걸쳐 전문화 되었기에 안성맞춤이 되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목동 때부터 늘 자기에게 맞는 위기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매끄러운 돌을 만지작거리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곰과 사자를 잡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까지 잡았다.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날마다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한 물맷돌 연습뿐이었다. 던지다보니 물맷돌 던지기에 전문가가 되었다. 다른 것을 의지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은 환경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사울의 투구를 탐내었는가? 오히려 사울이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주려할 때,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을 뒤로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상대방과 싸울 수가 없었다. 남들의 시선과 더 좋은 환경의 부러움을 포기하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전문가이다. 이것이 안성맞춤이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정복하고자 1812년, 러시아보다 세 배나 많은 군대를 모집해 러시아로 진격했다. 러시아 군대는 이에 맞서서 대항하지 않고 모든 가옥과 농작물을 불태우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는 힘들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러시아 영토 깊숙이

진격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군대는 예상하지 못했던 발 빠른 진격 때문에 식량 보급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습적인 강한 추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죽음의 철수를 시작했다. 출발 당시, 60만 병력 중에 8만 명만 남은 채 모스크바를 포기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였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러시아를 정복하기를 기대했다면, 식량의 공급 루트와 러시아의 날씨를 철저히 연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국 전략에서 패하고 전술에서 패하니까 전쟁을 지고 만 것이다. 전략과 전술은 모든 전투에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전문가이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가 사역하는 곳에서 규모나 환경을 떠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교육이 잘되는 교회만을 맹목적으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할 비전이라 보지 마라.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비교 의식이다. 열심히 따라했는데 안되면 좌절과 분노만 있을 뿐이다. 안성맞춤은 다른 지방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지방의 것과 경쟁했지만 자신의 것을 수백 년 동안 특성화, 전문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 2. ( )에 목숨 걸어야 한다. - 나가면 현장이다. 안 나가면 탁상공론이다.

서울 한남동 이건희 회장 자택에 30평 규모의 지하실이 있다. 이곳은 이 회장의 집무공간이자 최첨단 제품 실험실이다. 책상 좌우에는 500개가 넘는 비디오테이프가 쌓여있는데 내용은 선진 기업들의 기술개발 동향 등이 주종을 이룬다. 전 세계의 삼성전자 각국 지사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가 선진제품 개발 동향이나 전시회 관련 비디오테이프, 신제품을 이 회장에게 보내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신제품은 항상 이 작업실을 거치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이 회장이 이 지하실에서 삼성제품과 선진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기도 하고 분해, 조립까지 해보고 삼성제품의 현주소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것을 '비교전시 경영학' 이라고 하지만 나는 '현장중시 경영학' 이라 부르고 싶다.

이러한 문제는 주일학교 현장에서 당장 나타난다.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것이 다음세대의 감소현상이다. 이 현상은 기성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증상이다. 여기에서 2학기부터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수용과 학원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함에 후후죽순 열리는 주말과 주일 과외의 확장은 그나마 열악한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인 시간제한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또 잡는다. 논리적 개념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더 중시하고 지식보다 감성을, 일방적 의사소통보다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력하게 선호

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약 90분에 집중되는 주일학교의 현장을 더 녹록치 않게 만들고 있다.

그럼 현장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기합시다’로 결정된다면 누가 좋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등산을 할 때,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과 자기 생각대로 막 가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는 가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지도와 나침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처음의 장소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내가 왜 잘못 왔는가? 왜 주일학교 현장이 어려운가? 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가? 왜 아이들이 설교시간에 고개를 들지 않는가? 왜 아이들이 예배시간에 늦게 오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현장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왜’라는 질문이 없으니까 현장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

지금 시대는 고객감동의 시대에서 고객만족의 시대로, 그리고 고객졸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주일학교의 고객(아이들, 부모들, 성도들)을 감동도 못시키고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들은 현장에서 감동받고 감동되기를 원한다. 현장으로 가야한다. 가기만 해도 감동받는다. 언제까지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현장에는 큰 현장, 작은 현장이 없다. 피와 땀을 흘리는 곳이 현장이다. 피를 흘려본 적이 있는가? 땀을 비 오듯이 흘린 적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말고 주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말이다. 없다면 부흥을 논하지 마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쳤던 몇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길에서 이루어졌다. 길에서 말씀하시고, 길에서 만나셨고, 길에서 고치셨고, 길에서 먹이셨다. 길은 현장의 대명사다. 길을 살려야 길을 갈 수 있다. 현장을 살려야 현장이 보장된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실제라도 다음세대의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있다. 현장을 등한시 한 기업들이 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을까? 고민하면 신기하게도 현장이 살아날 것이다.

### 3. ( )가 문제다. - 교사를 철저히 반복 훈련시켜라.

어릴 때 이런 주문을 외워봤을 것이다. ‘수리수리마수리’, ‘송구리당당 송당당 수구수구당당 송당당’ 책에서 봤던, 코미디에서 봤던, 이런 주문들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들이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에도 나타나고 있다. ‘텔미 텔미 테테테테텔미~(원더걸스)’, ‘쏘리

소리소리소리(수퍼주니어), '외토리아 외토리아 다리디리다랏뚜(씨엔블루)', '오오오오 오빠를 사랑해(소녀시대)'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길거리를 가는데도 노래의 후렴부분인 소리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눈을 감아도 소리소리 모션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노래와 함께 모션을 해봤다. 어~ 되네! 비로소 감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 그래 이거다!.

다음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반복적이며, 쉽고,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이가는, 그리고 주문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만들어보자. 감사하게도 모두다 'ㅁ'자로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만말물먹만'이다. 처음의 '만'은 '만나라'의 줄임말이다. 스파크가 없는데 불이 붙을 수가 없다. 스파크는 +와 -가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 이것은 공식적인 만남이다. 이 만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별 감동이 없다. 비공식적인 만남을 아이들과 가져야 한다. 학교로, 학원으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라. 잠깐이라도 된다. 아이들은 시간의 길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인다.

두 번째의 '말'은 '말하랴'의 줄임말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이들보다 먼저 말하랴'는 것이다.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말할 것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말을 던져라. 학교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말을 해야 말을 받아준다. 그것이 예의라고 가르친다. 왜 꼭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가? 유교적 전통 아닌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면 된다. 사랑을 더 하는 사람이 먼저하는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은 진정으로 예의를 느낄 것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말과도 통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물'은 '물어랴'의 줄임말이다. '말하랴'와 '물어랴'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말하랴'가 외면적인 측면이라면 '물어랴'는 내면을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어보려면 아이들의 필요를 주시해야 한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을 형식적으로 대하면, 물어볼 수가 없다. 왜 모르니까! 이번 주에 아이들의 필요를 물어보았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라. 물어보려면 고민해야 한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내면 깊이 있던 고민을 끄집어내었다.

네 번째 '먹'은 '먹이랴'의 줄임말이다. '코 밀이(입)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사역 진리임에 틀림없다. 왜 먹는 것이 중요한가? 아이들이 배고프기 때문인가? 아니다. 먹는 그 시간이 교사가 아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주일학교 사역

은 시간싸움이다.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다. 먹여주면 아이들은 자기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누명을 쓰시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먹기를 탐해야 한다. 호시탐탐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으면서 말이다.

다섯 번째 '만'은 '만져라'의 줄임말이다. 일종의 가벼운 스킨십을 의미한다. 스킨십은 안정감을 준다. 두 사람이 만날 때 손바닥을 부딪치며 하이파이버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 인정받으니까 안정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만졌을까? 어떻게 만졌을까? 고민하라. 과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인정받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아이들이 결석할 수 있을까?

#### 4. ( )을 바꿔라. - 재미+의미를 모든 곳에 대입시켜라.

방송인인 김제동씨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대구지역 행사장 MC로서 든든한 자리매김을 하다가, 가수 윤도현씨의 눈에 들어 2002년도에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시작으로 방송에 데뷔했다. 2006년에는 방송 연예대상을 받았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사람들을 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눈 작다고 해도 난 괜찮아요. 당신들은 세상을 크게 보지만 나는 자세히 보고요. 당신들은 눈에 먼지가 들어가기지만 나는 안 들어갑니다." 자기의 외모에 대해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재미있게 이야기 하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던 "사랑했다면 앞을 보고, 사랑할거면 서로를 보고, 사랑한다면 같은 곳을 보라."는 글귀는 말장난 같지만 참 재미있는 표현이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 진다. 그는 청중을 감동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 김제동씨의 어록만을 정리해 놓은 인터넷 카페가 있다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청중들을 이끄는 가르치는 자의 4가지 스타일이 있다. 첫째 '재미+재미'로 재미있게 시작했다가 끝까지 재미있게 가는 방법. 마치 개그프로그램과 같다. 웃지만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둘째 '의미+의미'로 의미 있게 접근해서 끝까지 의미로 가는 방법. 과거의 교실에서 나타났던 방법이다. 진지함은 있지만 지루함의 극치를 달린다. 셋째 '의미+재미'로 의미를 먼저 주고 나중에 재미를 줌으로 마무리한다. 배우려고 하는 학습의욕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재미+의미'로 재미라는 도입을 통해 학습의욕을 자극하고 의미를 부

여함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이끄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청중 즉,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원하는 방법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재미+의미. 지금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소위 떴다는 강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전적으로 지지하는 부류들이 다음세대 아이들이다. 재미가 없으면 일단 접는다. 설교나 공과공부 시간에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미가 없다는 표현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항으로 보고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재미라는 메뉴를 넣어서 신선하게 만들어보라. 금방 반응을 보인다.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미를 평가한다. 단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복음서를 보니까 주님은 재미+의미의 대가이셨다. 거의 대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심지어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다(마 13:34)고 기록하고 있다. 비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할 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재미이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하중을 지탱하는 기둥같은 구조물, Beam)는 깨닫지 못하는냐?” 상상만 해도 너무 재미있다. 내 눈에 내 몸보다 더 큰 기둥이 박혀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나무라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재미있는 표현이었지만 그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평가는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의미(전통)+의미(형식)를 추구하던 서기관의 가르침과 재미(비유)+의미(깨달음)의 예수의 가르침은 비교할 수 없었다. 수 천 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변했지만 청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어떻게 하면 설교(공과)를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라.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와 개그프로그램을 봐야한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곳을 방문하라.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곳에 재미가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또 고민하라. 내가 이해한 의미로 표현하지 말고 그들이 이해할 의미로 표현하라. 소수의 제자훈련생을 통해 의미를 점검하라.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곳에서 의미는 재해석되어진다.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열어주신다. 13년 주일학교 사역의 보이지 않는 해답이다. 오늘도 고민한다. 고로 사역한다.

## 5. ( )을 눈높이에 맞추어라. - 아이들의 눈으로 보라.

강해설교의 대가인 미국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의 목회일화다. 캘리포니아의 해변

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젖은 모래를 신발에 묻힌 채로 예배당에 출입하자 교회의 카펫이 더러워지고 손상되었다. 이를 본 교회의 장로님들은 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자고 주장하였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는 차라리 카펫을 걷어버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장로들을 설득을 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카펫을 걷었기 때문에 오늘의 갈보리 채플이 있는 것이다. 목회자로서 목회의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갓난아기에게 물을 먹일 땀 젓병에 넣어 먹여야 된다. 청소년들에겐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만일 부모가 컵으로 물을 먹는 것이 편하기에 갓난아기에게도 똑같이 컵으로 먹인다던지, 청소년인 자녀가 아무리 귀여워도 젓병에다 물을 넣어 먹인다면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올바른 부모일 수가 없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물), 복음을 전하는 방법(젓병, 숟가락, 컵, 스스로)은 세대의 바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만 한다. 다음세대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사역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한다. 필자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며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새 포도주이다”. “나는 낡은 가죽부대가 되면 안 된다.” 스스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인정하는 의식화 작업을 한 것이며 또한 내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던가? 먼저 적(대상)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이 시간을 빨리 줄이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들의 관건이다.

- 먼저 적(대상)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편견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새 포도주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낡은 가죽부대인 우리가 보기에 아이들이 어리다, 철없다, 개념 없다, 튼다라고 표현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폄하하지만 그들은 분명한 새 포도주다. 이들은 한 없이 팽창하게 되어있다. 낡은 가죽부대가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이 팽창을 저지하려다 보니 터져 둘 다 보전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역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다 이 문제로부터 온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다. 싸우려하지 말고 교사가 먼저 인정하라. “그래 니네들은 새 포도주들이지...” 그럼 속도 편해진다.

- 둘째 적과의 동침을 시도하라.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동침은 동참이다. 참여시키는 것이다. 요즘 적들은 그렇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필자는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만화에 은사 있는 아이들을 선택한 후, 설교를 15~20컷의 만화로 그리게

했다. 그것을 다음 주 주보에 올렸다. 설교보다 설교만화를 더 좋아하였다. 설교만화로 퀴즈까지 내니까 적들이 더 좋아하였다. 그리고 주일예배 사회도 적들에게 맡겼다. 적들을 제자 훈련까지 참여시켰다. 매일 목욕하는 날을 만들어서 함께 목욕도 했다. 이제 이 적들이 나를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봐주었다. 적과의 동침은 성공적이었다.

- 마지막으로 적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권위가 아니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감성적인 경험의 세계다. 권위에 익숙한 우리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전국 188개 노선에서 1100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금호고속이 올해 고객의 소리를 우선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업계 최초로 VOC(Voice Of Customer)를 전담하는 ‘고객 행복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 행복팀을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은 하루에 60분씩 현장에서 고객들의 VOC를 청취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현장60’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이 선정이유다. 나도 금호고속 한번 타보고 싶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다음세대들이 아닌가? 얼마나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내 소리를 집어넣지 말고 그들의 소리를 끄집어내라. 이것이 고객만족이며 대상을 이해하려는 몸부림이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길은 새 포도주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죽부대인 우리에게 달려있다.

특강  
2

# 포스트모던 시대를 깨는 SOS 전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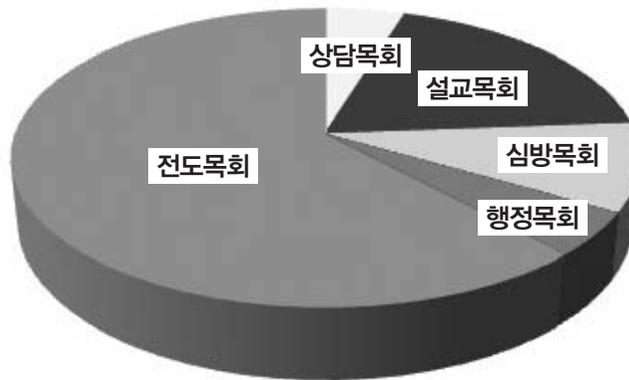
대영교회, 총신대 강사 최복규 목사



11월 14일(월) 오후 5:00~6:30 |

사회 : 전도부 회계 김기성 목사

## I. 전도목회 중점사역



## II. 전도를 왜 못하나?

전도 대상자의 장벽	전도자의 장벽
고착된 생활 습관	정체성(사명=목적)과 의식결여
거부감	성화문제, 인격의 장애-성인 아이
개종에 대한 두려움(이교, 이단)	영성과 체질화의 문제(게으름, 나태)
가족관계(가부장적 제도)	전도신학 및 복음의 바른 이해 부족
경제적인 장벽	두려움, 열등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체험 및 확신 부족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영혼의 무관심
	사탄의 속임수 전략
	훈련의 부족
	분주한 세상 생활과 생존의 어려움

### III. 건강한 교회

#### (1)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와 잘못된 전도방법

- 1) 이동성장(수평이동)
- 2) 전도 방법론 난무에 대한 혼란
- 3) 남의 교인 데려오기(양 흡치기)
- 4) 물량주의, 세속주의
- 5) 신학이 없는 열정
- 6) 복음 제시 없는 친교, 교제
- 7) 신학의 문제
- 8)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 (2) 본질로 돌아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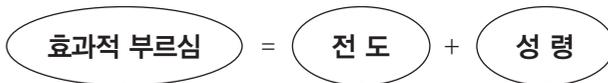
- 1) 강단의 복음적 설교
- 2) 성경(구속사)을 가르치라.
- 3) 개혁주의 신학(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르치라.
- 4) 성경적 전도를 가르쳐라.

##### ▶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 내적 부름을 받은 자를 외적 부름으로 찾아내는 것

-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려면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 ▶ 성령과 증인의 관계



#### (3) 복음을 바로 이해시켜라.

##### ▶ 복음이란 무엇인가?

#### IV. 세속적 전도와 성경적 전도의 차이점

세속적 전도	성경적 전도
신학 없는 열정	올바른 신학의 정립 및 이해
전도왕 사상	복음의 바른 이해
물량주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숫자 채우기	하나님의 상급

##### (1) 개혁주의 전도신학이란 무엇인가?

1) 복음전도의 창시자 성삼위 하나님

2) 전도와 주권적 신학(예정)



선 택	하나님이 하심
전 도	선택한 사람을 불러 모음

#### V. 전도의 전략과 전술

##### (1)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 ① 감성의 시대이다.
- ② 상대적인 시대이다.
- ③ 탈 권위 시대이다.
- ④ 신비를 추구하는 시대이다.

- ⑤ 쾌락 추구 시대이다.
- ⑥ 미디어 영상에 집착하는 시대이다.
- 관계 전도가 적합하다.
- 전도자의 복음 경험과 성령님의 은혜 충만이 중요하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전략과 7가지 원리(마 9:35~10:8)

- ① 추수할 일꾼의 부족
- ② 전도자가 알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 ③ 전도자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 ④ 전도자가 외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 ⑤ 전도자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⑥ 전도자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⑦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3) 21세기 현대 시대의 전도의 전략

빌리 그레함의 대형 전도집회	로이드 존스
① 설교 후에 공개적인 결단을 요구	① 복음 없는 연합은 교회의 몰락이다.
② 전도가 실용주의화가 됨.	② 인위적인 인본주의적 결단식 전도를 반대한다.
③ 인원 동원 위해 천주교 지도자들과 친분 맺음.	③ 신학 없는 연합 운동 반대

(4) 한국교회의 전도회복 대안과 S.O.S 전도 전략과 기술

- 1) 한국교회의 전도회복 대안
  - ① 전도 전문학교 개설
  - ② 개인전도에 능한 제자 키워내기
  - ③ 70인 전도대의 지속적 전도와 시스템화
  - ④ 1일 한사람 관계 맺기와 복음전도 생활화

2) 사람 낚는 어부, S.O.S 전도 전략과 전술 7단계

S(Scriptura/Spirit)- 말씀과 성령

O(Oikos)- 관계/ 개인관계 전도접근법 4가지

① 고민, 아픔 - 예수 증거

U.C-J.C=Ultimate concern = Jesus Christ

전도대상자로서의 고민, 필요, 아픔, 갈등을 다듬어 준 후,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식의 설명해 주는 대화법

② 일반적 관심- 종교적 관심- 영적 관심

C.C.F = Chlchat- church- faith

일상적인 잡담 형식으로, 격의 없이 대화하다가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교회와 신앙이야기로 연결하여 복음을 설명해 주는 대화법

③ 가족- 직업- 종교- 복음 메시지

F.O.R.M = Family- occupation- Religion- Message

전도자가 전도대상자를 만나 가족 사항을 질문하여 직업,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메시지(복음)를 전하는 방법

④ 질문- 경청- 복음 제시

Q.I.T = Question- Listen- tell

질문을 받고 정중히 경청한 후, 대화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S(Service)- 섬김

① 기쁨으로 섬김

② 사랑으로 섬김(사랑 전도 방법)

③ 기대하며 섬기라.

(5) 대영교회 70인 전도대(주일학교 유초등부) 운영 원리와 동영상

- ① 구속사와 교리교육. 복음을 깨달은 자 중심으로 모임
- ② 화요일 자원하여 참석
- ③ 예배 및 전도지침 교육과 전략회의
- ④ 팀별로 전도 상황 보고 및 점검
- ⑤ 전도대 팀으로 나가서 현장 전도
- ⑥ 70인 전도대 상설기관으로 자발적 전도
- ⑦ 어부의 심정으로 복음 전도

인도 / 전도부장 이석원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521장 .....	다같이
기 도 .....		제주동홍교회 박창건 목사
성경봉독 .....	삿 2:10 .....	인도자
설 교 .....	다음세대를 세우자 .....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광 고 .....		국내전도국장 황윤수 목사
찬 송 .....	568장 .....	다같이
축 도 .....		광음교회 김정설 목사



찬송가 521장(구원으로 인도하는)

1.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2.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3.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후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사기 2: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찬송가 568장(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1.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рода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2.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3.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рода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다음세대를 세우자 (삿 2:10)



저녁예배 |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인도 / 전도부 총무 정창수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360장 .....	다같이
성경봉독 .....	딤후 4:6~16 .....	인도자
설 교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	전도부장 이석원 목사
축 도 .....		설교자



찬송가 360장(행군 나팔 소리에)

1.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2.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3.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이 누리세
- [후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디모데전서 4:6~16

6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딤펴전 4:6~16)



새벽예배 |

전도부장 이석원 목사

1. 양육을 받으라.
2. 자신을 연단하라.
3.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4. 성숙함을 나타내라.

※결론 : 이 일을 계속하라.

## 현장 전도의 이론과 실제

현장전도훈련원장 유승열 목사



11월 15일(화) 오전 8:00~9:30 |

사회 : 전도부 서기 조종배 목사

### 1. 전도! 확실히 알자.

전도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내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삶의 행위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 1) 자신의 정체성(Being)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확실한 신앙고백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 2) 삶의 행위(Doing)

삶의 모든 분야에서 생활하면서 영혼구원의 초점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3) 말(Telling)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2. 현장전도와 전도훈련을 받으면 얻는 유익

- 1) 전도를 쉽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 2) 전도를 체험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 3) 자신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고 승리합니다.
- 4) 기적과 능력과 간증과 지혜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 5) 교회와 생활 속에서 어떤 사역이라도 영혼구원의 초점으로 하게 됩니다.
- 6)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벧전 2:9).
- 7)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 3. 복음 제시법

#### 1) 글 없는 책(복음딱지)으로 하는 복음 제시법

전도자 : (환하게 웃으며 기선제압) 안녕하세요? (칭찬한 다음) (복음제시)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글 없는 책 (복음딱지) 입니다. 색깔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색) 이것은 하나님 자녀 되어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00님 천국 가고 싶으시지요? 예

그런데 (검정색) 이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천국을 못갑니다.

그런데 (빨강색)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00님이 믿으시면 (흰색) 이것은 죄 용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황금색) 이 땅에서 풍성히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00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가지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접기도요청) 제가 00님을 대신하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영접기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지금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확인질문)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요. 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녹색) 이것은 신앙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00교회에서 만나뵙겠습니다.

#### 2) 성경핵심 3구절 PET 복음 제시법

접촉 .....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니까?

여기 '좋아요', '죽겠어요', '기뻐요', 이 세 얼굴 중 "요즘 어떤 얼굴로 사세요?"

"예 좋아요(기뻐요) 얼굴로 삽니다." 어떤 일로... 네? 그러세요.

“에 죽겠어요. 얼굴로 삽니다.” 어떤 일로... 네- 힘드시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요 얼굴로 안내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좋아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6,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고, 복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지음 받은 사람이 죽겠어요 인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어 죽겠어요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 요한복음 3:16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뻐요 하며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 4. 전도할 때 준수 사항

- 1) 전도할 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 2) 반드시 함께 기도한 후,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2인1조).
- 3) 성경을 들고 가면 모든 사람이 주시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 4) 잡담을 금하고 큰소리로 웃거나 몸을 많이 흔드는 일은 삼가고 전도 이야기만 합니다.
- 5) 길에서 전도할 때에는 시야를 넓게 하여 여유 있게 접근합니다.
- 6) 전도할 때에는 팀 중 리더가 먼저 합니다. 다음은 번갈아가며 합니다.
- 7) 전도하다가 이단을 만났을 때에는 상대방을 보내든지 자신이 피하든지 한 후, 전도합니다.
- 8) 상대방과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게해도 표정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 9) 입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가글, 사탕).
- 10) 마음 문을 열도록 부드러운 대화, 재치 있는 유머로 신뢰감을 갖도록 하고, 소속을 밝히고 접근해야 합니다.  
- 접근법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00교회 00집사입니다, 00동에 사는 00엄마예요).
- 11) 많은 만남이 많은 전도대상자를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 12) 단번에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할 때, 공격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13) 태신자는 결혼할 신부를 대하듯 모셔 와야 합니다(하늘나라 공주대접).
- 14) 전도자의 표정은 전도지보다 힘이 있습니다(미소훈련은 스스로 노력). - 얼굴전도지 활짝 피우기
- 15)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일주일에 100명 만나기 운동).

## 5. 전도 대상자를 알자.

### 1) 접촉하기

전도자는 사람을 만날 때는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그리고 전도용품을 주면서 지금 현장상태와 대상자의 모습을 이야기 합니다.

### 2) 영적 상태 파악하기

첫째, 완사(완전히 익은 사람). 기독교에 대해 긍정형의 사람들입니다.

식구들이 신앙 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다른 식구들이 가지 않으면 가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형편상 교회에 나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불신 남편 같으면 교회 주차장까지는 오는 사람입니다.

둘째, 반사(반쯤 익은 사람).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서 실망하여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나 직장과 사회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풋사(전혀 익지 않은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도자에게 화를 내며 주는 전도지도 받지 않습니다. 복음 제시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무관심하며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 (1) 파악하여야 할 문제

첫째, 기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합니다.

둘째,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파악합니다.

셋째, 가족과 주변 상황을 파악합니다.

넷째, 불신자의 공통적인 문제를 파악합니다.

#### (2) 어떻게 상대방을 파악하는가?

첫째,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들어줍니다.

둘째, 내가 먼저 마음속을 털어 놓아야 합니다.

셋째, 질문으로 문제를 파악합니다(예; 교회 못 나오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 3) 관계 맺기

- (1)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기
- (2) 공통분모를 찾기(동질성)
- (3) 멋진 표현과 질문을 하기
- (4) 상대방의 일(장점)을 주제로 이야기 하며,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
- (5) 사소한 변화에도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즐기기

## 6. 어린이 전도란 무엇인가?

어린이는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전도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섬김의 사역, 심는 사역이기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로 훈련된 교사와 어린이가 있으면 어른 성도의 10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린이 전도입니다. 어린이를 비전의 사람으로 제자로 훈련되어지면 6년 후, 청년부부터는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에서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고 알려진다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요즘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보내게 될 뿐 아니라 결국 자녀를 통해 부모까지 전도가 되어 집니다.

### 1) 어린이 전도의 문제점

- (1) 부모들이 경쟁사회에 대한 강요 때문에 어린이들이 개인 시간의 자유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설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교사 부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없는 현실입니다.
- (3) 교회가 주변인들과(부모, 이웃) 신뢰감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4) 교회마다 어린이 전도를 위한 투자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에 오는 피해가 큼니다.

### 2) 어린이 전도의 정의

어린이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는 변화를 얻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함으로 어린이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을 발견케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3) 어린이 전도의 동기

- (1)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마 18:14).
- (2)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마 28:19, 막 16:15).
- (3) 어린이(인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눅 19:10, 요 12:47).

### 4)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

- (1) 교회 교인수가 늘어납니다.
- (2) 어린이 전도가 성인 전도보다 더 쉽습니다.
- (3) 어린이의 영혼과 함께 남아 있는 생애를 구하는 일입니다.
- (4) 어린이를 통해서 가족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 7. 상가(시장) 전도

### 1) 상가 전도의 필요성과 좋은 점

상가는 항상 문이 열려있어 언제든지 전도대상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가 전도를 통해 교회가 홍보되고 이미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과 관계망을 형성해 전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상가 전도 진행방법

- (1) 오후 3~4시 경, 부침개를 가지고 방문하면 접촉이 쉽습니다(설문조사).
- (2) 전도자 신분을 밝히고 명함을 달라고 하며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합니다.
- (3)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는 “일요일은 영업을 하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전도대상자의 수용성에 따라 재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00사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4) 수용하는 태도를 보며 상황에 따라 복음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5) 재차 방문하면서 영적상태를 파악하고, 전도대상자에게 교회 출석을 권유하며, 반응에 따라 인도합니다.

### 3) 상가 전도 시, 주의 사항

- (1) 손님이 있을 때, 전화를 받을 때는 기다리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모든 정보는 자세히 전도 수첩에 기록합니다.
- (3) 타 교인일지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거점을 만듭니다.

(4) 명함이 있는 상가는 명함(전단지)을 가져옵니다.

#### 4) 시장 전도

재래시장 상인 및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주민들이 장을 보고 손에 비닐봉지를 여러 개 들고 오는데 손이 아픕니다. 이럴 때 일정하게 자른 박스 종이를 (교회 스티커를 붙인) 끼어 주면 손이 안아파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홍보도 되고 이미지 전도가 됩니다.

#### 5) 건널목 전도

##### (1) 건널목 전도의 효과성

- ㄱ) 자주 만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 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직장인, 주부, 학생 등). 장기 결석자와 태신자도 만납니다.
- ㄷ) 전도자가 자신감이 생기며 외침 전도를 통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 ㄹ) 매주 정한 시간에 하면,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홍보가 됩니다.

##### (2) 건널목 전도의 방법

- ㄱ)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접근하여 칭찬, 인사, 선물을 주며 전도합니다.
- ㄴ) 일부는 찬양하고 외침전도를 하며, 신호대기 시 복음 제시도 합니다.
- ㄷ) 이때 신호등이 바뀌어도 감동되는 사람은 따라가며 전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전합니다.
- ㄹ) 복음 제시를 할 경우, 최대한 간단하고 신속히 해야 합니다.
- ㅁ) 탁자를 설치하면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차 대접, 부침개, 간식, 기타 제공).

##### (3) 건널목 전도 시, 주의 사항

- ㄱ) 열매가 없다고 중단하면 안 되고, 이미지 전도입니다.
- ㄴ) 신호등이 없는 지역은 마트 앞이나 정류장이 효과적입니다.
- ㄷ) 건널목 주변 노점상이 있으면 물건을 사주거나 양해를 구합니다.

#### 6) 병원 전도

##### (1) 병원 전도 방법과 효과성

- ㄱ) 전도대상자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쉽게 마음 문이 열립니다.

- ㄴ)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간병인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 ㄷ)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짧은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 ㄹ) 항상 2인 1조로 하며, 자신이 병 고침 받은 간증을 하면 좋습니다.
- ㅁ) 복음제시, 치유기도, 양육이 가능합니다.
- ㅂ) 관계를 잘 맺고 재방문을 통하여 퇴원 후에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 ㅅ) 감동되는 선물이나 정성스런 음식(죽 등), 지압봉 등이 효과적입니다.
- ㅇ) 병실에 들어가서 교인을 발견하여 먼저 접촉하고, 다음 환자를 전도하면 쉽습니다.

(2) 병원 전도 시, 주의 사항

- ㄱ)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문 시간을 조절합니다(식사, 수면, 회진 등).
- ㄴ) 큰소리로 기도, 대화를 삼가며 오랜 시간 머물지 않습니다.
- ㄷ)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며 겸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집니다.
- ㄹ) 신경이 예민한 환자도 있습니다. 다른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 ㅁ) 아이를 동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 ㅂ) 병에 대한 지나친 의견제시나 위로는 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전도 시 반대 질문 처리법**

- 1) 심한 반대 의견에 부딪힐 경우, 아직 때가 아니므로 일보 후퇴합니다.
- 2) 심한 말(욕 등)을 들었을 때는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 3) 반대 의견(거절)을 들었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 4) 엉뚱한 질문이 나올 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 5) 반대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칭찬합니다.
- 6) 방해하는(애매한) 질문은 나중에 미루든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 7) 어려운 질문은 다음에 대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만날 기회로 만듭니다.
- 8) 간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사고, 질병, 고난 등).
- 9) 상대방 질문을 신중하게 들으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 10) 반대 질문 시, 질문의 종류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와 전도를 막기 위한 사탄의 방해 일 경우, 그리고 대부분은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설문지 전도

### 1) 설문지 전도의 효과

- (1)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열고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 (2) 상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에 정확한 대답을 얻는 것보다 설문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 (3)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수용성이 있는 전도대상자를 재방문하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4)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설문지로 접촉이 가능합니다.
- (5) 설문조사에 반응하는 사람은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 (6) 태신자들에게 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쉽게 영육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 설문지 전도방법

- (1)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조사 이유를 설명합니다.
- (2) 설문조사 중이나 끝난 다음,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 (3)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과 선물을 드립니다.
- (4) 신상이 파악되고 수용성에 따라 전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재방문 또는 전도편지를 발송합니다.
- (5) 현장에서 설문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문지를 주고, 다음에 찾으러 오겠다고 하며 두고 갑니다.
- (6) 상가, 공원, 놀이터, 정류장, 노방, 방문, 시장, 학교 등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7) 노방에서 차 대접, 샌드위치, 팝콘, 부침개 등을 만들어 주면서 기다리는 동안 설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주의할 사항

- (1) 이단도(하나님의 교회) 설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속 교회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2) 거부하는 사람은 받지 말아야 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3) 주소나 전화번호가 틀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4) 글을 모르는 분에게는 설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읽어 주면서 작성합니다.

## 10. 전도대상자에 따른 대처법

상대방		전도자	상대방	전도자	
1	믿어요	어머나! 참 반갑네요.	(확인질문)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할렐루야, 전도하며 사세요.
				머뭇거리면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나가시나 봐요?
2	아니요	어머나! 그러세요.	예전에 예수님 믿으신 적 있나요?	있어요.	언제쯤이에요? 지금은 어떠세요?
			가족 중에 믿는 분 있나요?	아이들만 믿어요. 부모, 형제 믿어요.	아이들은 어느 교회 보네세요?  어떻게 안 믿게 되셨나요?
3	아니요	어머나! 그러세요.	예전에는요? 가족 중에는요?	없어요.	그렇군요, 주위에서 전도하는 분이 있나요?
4	불교예요	어머나, 그러세요.	어느 절에 다니세요?	잘 안가요	안나가시는 사정은 있으세요?
				자주 나가요	(질문) 영적상태 파악
5	천주교 예요	어머나, 참 반갑네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시겠군요?
				머뭇거리면	매주일 미사에 나가시나요? 냉담 기간 이시나봐요? (구원확신 심어주기)

# 주일학교 부흥의 모델링 - 사례

거창중앙교회 이병렬 목사



11월 15일(화) 오전 9:45~11:15 |

사회 : 전도부 회계 김기성 목사

## I. 기존 전통교회에서 유년주교 중심, 전도중심 교회로의 전환과정

### 1. 이전 상황 (2000년도 3월 - 필자 부임 당시 기준)

#### ● 설립 21주년의 전통교회

- 장기 목회가 어려운 상황 (필자가 11대 목사였음)
- 지속적인 분열과 다툼
- 팽배한 패배의식
- 열악한 재정상황
- 힘을 잃은 새벽기도회 - 오직 노년 성도 5명
- 당시 성도 출석 규모 - 유년주교 5명 / 중고청 40명 / 장년 40명

### 2. 처절한 몸부림

#### ● 새벽기도회

-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의 편이시다!”
- “주여! 왜 저를 거창으로 보내셨습니까?”
- 2시간 이상 전심 기도(부르짖는 기도와 묵상기도 병행)
- 2000년도 7월부터 참석인원 40여명(중고청년 영적 소생)

#### ● 축호전도

- 2년여 동안 2천여 가구 방문 전도 - 등록 1명 - 큰 충격!
- 지역사회와 거창중앙교회의 영적 상황을 알게 됨.
- 더욱 하나님께 집중몰두(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

### 3. 하나님의 응답

- 2003년 2월, 처절한 3년 간의 기도에 응답하심.
  - “유년주일학교 하라!”, “일천 명 하라!”
  - “꿈을 가지라! / 전문적으로 일하라! / 전력투구하라!”
- 하나님 응답 주신 후, 1년여 간 목회패러다임 대전환에 몰두.
- 2004년 3월부터 “유년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게 됨.

## II. 거창중앙교회 유년주일학교 중심 목회 현장

### 1. 사역목표

- 거창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다음세대 세우기 사역에 집중하며 이 시대의 모델교회가 된다.
- 거창중앙교회는 어린 새싹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양육하여, 일평생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불꽃목자가 되게 한다.
- 거창중앙교회는 이들이 먼저 행복을 누리게 하며, 나아가 그 행복을 나누는 성도로 양육한다.

### 2. 목회 패러다임의 대전환

- 목회 중점 - 유년주일학교 중심목회
- 목회 철학 - “유년주일학교에 다 있다!”
- 목회 체제 - 담임목사 주도하에 평신도지도자 협력체제

### 3. 사역중점



### III. 주요사역 추진 상황

#### 1. 무학년제 (전도자 우선 반배정)

- 전도한 영혼의 평생을 책임지는 친자양육체제
- 전도한 영혼을 다른 반으로 연결하는 서자양육 배제
- 영·유아반은 별도의 반으로 편성(고려중)
- 주일학교 부흥의 주요원동력이 됨.



#### 2. 전성도 교사화

- 모든 성도를 교사로 사역하게 하는 원리
- 성도 제자훈련의 목표를 주일학교 교사양성에 둔다.
- 교사종류 - 주교사 / 보조 / 차량 / 기도 / 재정 / 간식 ...
- 「주일학교 부흥」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임을 절감하는 교사로 양성
- 교사 교육은 밤 8시 부터 10시까지 주 3회 실시.
- 모든 메시지에서 지속적으로 「다음세대 세우기」를 강조한다.
- 장년 새 가족 성도는 「전인치유수양회」이수 후, 보조교사로 참여케 함.
- 전성도를 어린이 전도에 집중하도록 한다.
- 「어린이」들이 최고의 전도 접촉점임을 알게 한다.  
(어린이 때문에 전도된 부모는 교회 정착률이 매우 높다)
- 「어린이」들이 모든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케 한다.

#### 3. 자원 집중화

- 교회의 전 인력, 전 재정을 주일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교회의 대부분 행사와 사역을 유년주일학교 중심으로 추진한다.
- 타 기관의 활동 중, 대부분을 주일학교 사역과 연관 되도록 한다.

#### 4. 불꽃 목자화

##### (1) 「불꽃목자란?」... (요 10:11)

-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Junior Jesus)로서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영혼사역자  
(우리는 예수님을 제 1호 불꽃목자로 믿고 따른다.)



불꽃목자 파송식

- 그 맡은 일을 불꽃이 타오르듯이 열심을 다하는 목자.
- 우리 교회는 성도, 어린이 모두를 불꽃목자로 양육한다.  
(청장년 불꽃목자는 곧 주교 교사임)

## (2) 불꽃목자의 자격

- 구원의 확신 -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 성령 체험 -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산 믿음이 있는가?
- 「훈련과정」이수 - 「시험(TEST)」 통과 의무
- 2명이상 전도 - 목자 사역 위한 기본인원 확보
- 파송예식 - 예배 / 안수 / 임명장 / 링타이 / 불꽃목자 가방 수여.

## (3) 불꽃목자의 임무

- 최소 6명을 인도한다.(전도, 인도, 양육, 또 다른 목자로)  
    ※ 최초 불꽃목자 임명 당시 목원 2명 이상이어야 함.
- 목장을 번식 시킨다(장려함 - 후배인도 양육법).  
    ※ 최소 2사람을 불꽃목자로 양육하라!
- 신앙생활에 모범생이 된다.
  - 기도생활(매일 6시 기도회, 예배 전 기도 등)
  - 예배생활(진심으로 매주일 오전, 오후 예배)
  - 가정생활(부모님 전도, 변화된 생활 자세)
  - 학교생활(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
- 평소 목원들에게 관심을 쏟는다.  
(자주 심방/ 문자 메시지/ 학업 도우미/ 모임 유도)
- 목사님(선생님)사역을 돕는 자가 되도록 한다.



## 5. 예수님의 성품 닦기 사역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1) 현실 문제 인식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품 문제라 할 수 있다. 성품 교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은 물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성품교육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과, 특히 어린이 때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우리 교회의 선택

‘30가지 성격동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공부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3) 「30가지 예수님의 성품」내역

진실	정확	엄격	근면	관대	섬세
견고함	오래참음	깊이있음	순수	올바름	침착
몰두	공적임	열려있음	다정함	열렬함	가까이함
강함	온유	순종	고통을참음	겸손	베품
꾸준함	어려움 견딤	압박견딤	분명함	후함	무게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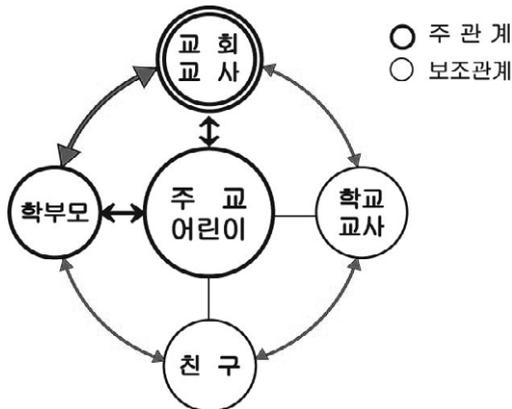
※ 30가지 성격동화 애니메이션 / 앞으로 영문판도 겸하여 사용 예정.

(4) 지도방식

1) 한 가지 성품에 대해서, 4~8주간 동안 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해 전달하고, 실천항목을 도출, 삶에 적용토록 인도한다.

2) 세부 실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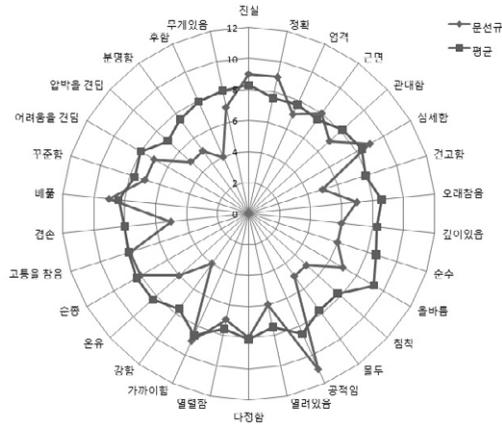
아래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담당교사 주도하에 학부모와 연계해서 점검 및 개선토록 지도한다.



### 3) 주기별 성품 테스트

- 해당 어린이의 변화된 모습을 제시하고, 더욱 개선할 점들을 학부모와 상담한다.

(1차 성품테스트 예)



## 6. 예배

- 어릴 때부터 바른 예배자로 키운다.

(성전 예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찬양, 기도, 예물을 드리고,  
 낮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한다.

(삶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예배임을 알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자세를 실천하게 한다.

- 예배 장소는 본당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주일 아침 7시, 교사기도회로부터 모든 사역을 시작한다.
- 주일 예배는 두 번 드린다.  
 (오전 9시 - 설교 중심예배 / 오후 2시 - 전체모임과 분반공부)  
 (주일 오전 예배 시, 설교는 담임목사가 한다.)
- 모든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한다.



▲ 주일 오전 예배



▲ 주일 오후 모임

## 7. 주요 행사들

- (대원칙) - 모든 행사에는 학부모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 자연스럽게 어린이가 가정구원의 통로가 되게 한다.

- 매주 토요일 전도 및 심방
  - 각부(담당학교)별 학교전도 및 심방
- 매주일 총력전도
  - 주일 점심식사 후, 전성도 어린이 전도 실시
- 예사랑 축제
  - 전성도 전도 축제가 되게 한다.
  - 1년에 1~2회
  - 자체 프로그램으로 편성
  - 간혹 외부 강사 및 팀사역자들을 초청할 때도 있다.
- 부모님 초청 달란트 잔치
  - 1년에 1~2회      - 부모님 참여에 중점 두고 추진
  - 교회 및 동네잔치가 되게 한다.
- 쉼마 말씀 (=자체 기획) 암송대회



▲ 예사랑 축제



▲ 부모님 초청 달란트 잔치



- 효도대잔치 - 지역 어르신들 초청하여 위로잔치 및 어린이 효도 실천교육.
  - 1년에 1~2회      - 지역 어르신 500여분 초청.
  - 실내 체육관 임대 사용.



- 수련회 - 불꽃목자 수련회 / 전인치유 수련회 / 이미지성경 수련회.

#### IV. 기대 효과

1. 하나님 말씀 따라, 단순한 목회체제를 이룸.
  - 모든 성도와 함께 한 정점을 향한 집중력 도출.
2. 타 기관(학생, 청년, 장년, 노년)의 연관부흥 실제화.
  - 현재 장년성도의 60% 정도는 어린이에 의한 전도열매임.
3. 교회와 성도의 삶 전반에 생기 충만.
  -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니,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확신

## 어린이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총무 변규정 목사



11월 15일(화) 오전 11:30~오후 1:00 |

사회 : 전도부 총무 정창수 목사

### 1. 모임에 성공해야 합니다.

#### 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춥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년 주교 예배의 주인공은 어린이입니다.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직접 참여하여 유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관찰하셔야 합니다.

#### ② 어린이가 주체가 되게 합니다.

어린이들이 안내, 헌금기도, 사회를 보게 해야 합니다.

#### ③ 주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합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이라면 찬송, 공과, 특별활동 등도 그 주제와 맞춥니다.

#### ④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배의 갱신입니다. 예배의 작은 변화라도 준다면 어린이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드라마 설교, 만화그림으로 광고, 설교내용에 맞는 설교자의 분장, 인형극 등

#### ⑤ 설교의 효과를 높입니다.

천국을 설교할 때는 마치 직접 천국에 가본 것처럼 실감나게 전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들려주지 말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 ⑥ 분반운영의 원리에 충실합니다.

학생들에게 직책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에게 편지, 매 주 한 번씩 전화 심방, 학생들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 ⑦ 공과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한 주제에 대해 직접 퀴즈로 풀어보고, 쓰고, 그림을 그려보고 토의, 적용시킵니다.

⑧ 가르침을 적용시킵니다.

달란트 비유를 가르친다면 실제로 천 원씩 빌려 주고, 일주일 동안 이익을 남겨보라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⑨ 반드시 구원 상담을 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담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⑩ 부장집사 중심의 운영체계를 세웁니다.

그 운영을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 부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육은 교역자가 하고, 모든 관리와 운영은 부장이 하여 서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각자의 전문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 2. 어린이 설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심령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어린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행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설교시간은 말씀과 시청각과 영상과 예화 등 어린이의 심령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들을 뽑아 어린이들의 영성을 집중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들으려 하기보다는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audio’가 아니라 ‘video’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내용이라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료가 없더라도 설교자의 말 즉, 언어 표현을 통하여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문어체를 쓰지 마시고 구어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을 묘사할 때, 이천 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 속의 장면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들이 설교를 듣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어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현재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의 원대로 나누어 주시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말

씀이나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모습이 현재로 기록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결정적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와 만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말씀을 현재로 전할 때, 가장 힘 있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설교자 자신의 언어 표현 방법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③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적을 외우게 하거나 내용의 줄거리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 심령을 파고들어 그들의 생각과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아, 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겠구나”, 바로 그 순간에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 장소 등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게 하셨는가?”,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바로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방법이야말로 시간적으로 따로 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다윗 베드로가 흘린 눈물을 그 자리에서 어린이들이 보고 하나님을 향한 어린이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교훈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 잘 적용이 되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이 준비할 때에 어린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늘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의 가난에 대해 설교하고자 한다면, 나사로의 가난이 순전히 물질적인 가난과 어려움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사로가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만을 부각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가난 가운데 나타나는 나사로의 외로움, 소외감 등도 부각시켜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린이들 가운데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나 정신적인 가난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는 부요하여 배고픔과 가난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는 정신적인 가난과 외로움으로 나사로의 가난을 접근시켜 준다면, 그 설교를 듣는 어린이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각기 다른 적용 즉, 설교를 듣는 어린이들의 상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④ 결론은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는 설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설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그것이 설교라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⑤ 설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단입니다.

설교를 듣는 어린이들이 결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단이 없는 설교는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반응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자로 세우시는 이유도 바로 어린이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설교를 듣고 어린이들이 결단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어떤 경우에도 결단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 자신이 결단하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 3. 풍성히 먹여야 합니다.

#### ① 통 설치

지방 어느 교회에 어린이부흥회 강사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궁금했는데 교회 복도를 따라 사무실로 향할 때 해답을 찾았습니다.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통이었습니다. 복도 구석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쭙었더니 그 교회를 찾는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매 주일마다 동네에서 수퍼를 하시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토요일만 되면 갖다가 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어린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뿐 아니라 과자 등도 구비해 놓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증하시는 성도들의 사진과 어린이들을 향한 격려의 멘트 등도 벽에 부착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천국복음과 더불어 늘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던 디베라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여 주셨던 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시켜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보내셨던 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 조반을 먹자고 하셨던 일, 끝이 없습니다.

## ② 후원자 세우기

일대 일로 어린이들과 후원자를 맺어 주는 것입니다. 여자 어린이는 여자 성도가, 남자 어린이는 남자 성도가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의 날’ 이라든지 어떤 제목을 달아 전체적인 모임을 주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이번 주는 1학년 후원의 날로 정해 그 주일 어린이 예배에 1학년 후원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주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③ 기도대 운영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이번 주는 5학년 후원자들 중 여자 어린이 후원자들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기도실이나 빈 교실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임입니다. 언젠가 여름에 어느 교회 여름성경학교 강사로 갔는데 여전도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이려고 오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어머니들이 간식을 전달한 후에 기도실로 가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 어떤 준비보다 이 모임이야말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장 많이 갖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 ④ 테마가 있는 주일

주일마다 공과 주제에 맞추어 예를 들면, 출애굽에 대한 것이면 교역자 교사들의 복장도 그 분위기에 맞는 것으로 준비하고, 교회 입구부터 성경구절 등 게시하고 그림으로도 벽에 붙이고 아이들이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날 뭘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해 미리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 전까지 찬송, 복음성가 등 틀어주고 영상이 가능하다면 만화로 된 그날 주제에 맞는 것을 준비해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 ⑤ 매주 선물

담임교사가 매주 마다 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 선물이 아니라 작지만 선생님의 정성이 깃든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학용품 등입니다. 매 주마다 아이들에게 공과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먹고 간식을 줌으로써 영육 간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어린이들이 손에 작지만 선생님이 마련해 주시는 간식을 들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매주 간식 메뉴를 다르게 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고 주일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자료 1.

### 어린이 5000명이 모이는 꽃동산교회의 주일학교 교육현장 이론 및 실제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회장이시며 꽃동산교회 담임목사이신 김종준 목사는 그의 저서 '나는 유년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다'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왜 멈췄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사역의 중심점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사역의 중심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어린이 선교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유년주일학교의 교육이 굳건해지면 중·고등부, 청년부 나아가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체가 균형있고 건강하게 유지되며 발전되어 나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투자가 장년부를 중심으로 몰려있다 보니 주일학교에는 관심을 기울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으레 신자로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하고 물으면 어린이들의 수는 빼고 장년 수만 얘기하는 것이 통례화 되었습니다. 교회의 다른 부서들을 위한 공간은 대단히 웅장하고 넓는데 비해 교회 교육을 위한 공간은 너무나 협소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서로 방음도 되지 않는 곳에서 공과공부를 합니다. 바로 옆에서 교사가 가르치면 그 옆 반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문제점은 교회 내에서의 교육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주일 오전 저녁 수요일 금요기도회 구역예배 등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그나마 장년교육이 열매를 맺고 있지만 주일학교는 물론 주일날 오후에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 많은 교회가 주일 오전에 한 시간 정도 밖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 공과 전후에 갖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면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그야말로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처해있는 교회교

육의 현실인 것입니다.

1981년 초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의 출범은 이미 꽃동산교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본 선교회가 주최한 교사강습회에 3000명이 넘는 수없이 많은 교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 비결은 ‘교사의 영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그것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꽃동산교회의 담임목사이신 김종준 목사님께서 본 선교회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전면에 내건 표어는 ‘어린이 전도와 교사교육’이었습니다. 그 철학은 꽃동산교회 주일학교에 그대로 적용 되었으며 그 결과 꽃동산교회는 오늘날 어린이가 4000명이 모이는 대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 투자에는 집중투자, 프로그램투자, 책임투자가 있습니다.

#### (1) 집중 투자

꽃동산교회의 경우 어린이 총동원 주일 즉, 일명 복음축제에 할당되는 예산이 교회의 단일행사로는 단연 최고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는 장년예배가 따로 없고 하루 종일 어린이들이 교회 본당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공간을 사용하고 모든 예배와 교육이 어린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꽃동산교회 교육의 성공은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담임목사님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베푸자는 것입니다.

#### (2) 프로그램 투자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투자를 요구하는 방법보다는 모든 프로그램을 어린이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주일학교를 향한 교우들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로 하여금 주일 날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그 시간만큼 자녀들을 교회에 머무르게 하여 교육의 시간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주일오전에만 교육하지 말고 점심 후에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영어예배, 영어성경공부 등 다양하고 색다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성공은 자료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자료만 보아도 그 집회의 내용을 한 번에 파악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 (3) 책임 투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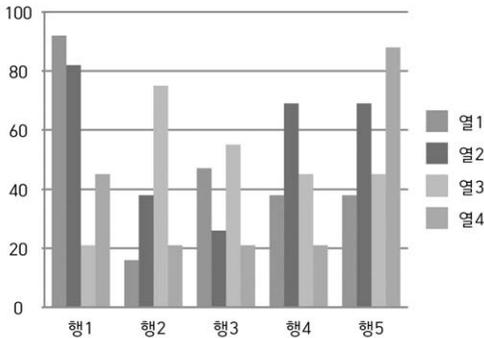
교회교육의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꽃동산교회의 교육 방법들에 대하여 김 종준 목사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헌신과 교회 전체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담임목회자와 교사 교인 모두가 어린영혼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설 때 교회교육은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언급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린영혼들을 바라 봐 주신다면 교회교육은 반드시 살아 날 것입니다.

### 결론

꽃동산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중심에는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교육’ 의 대 전제가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시간투자, 물질 투자, 열정투자인 것입니다. 이런 행사 앞, 뒤에는 전교회적인 대규모의 기도 운동과 집회가 이어집니다. 수적인 부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질적인 향상, 그야말로 복음과 눈물이 범벅이 되는 감격적인 부흥의 대 역사가 오늘도 꽃동산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자료 2.

### 1. 색상별 부서 디자인



1년을 사분기로 나누어 어린이부 예배실의 분위기를 바꾼다.

예를 들어 1,2,3월은 파랑색, 4,5,6월은 노란색, 7,8,9월은 초록색, 10,11,12월은 하얀색으로 하여 포스터, 그림, 표어, 등등 모든 컬러를 계절에 맞게 환경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1년 내내 다른 분위기로 생동감을 더해 줄 수 있

을 것이다. 이왕이면 울동팀, 찬양팀, 주보 등등 계절에 주어진 색상으로 의상도 준비하고 주보의 색상도 그렇게 해 본다면 어떨까 싶다. 새로움을 더해 주게 될 것이다.

### 2. 다양한 예배 컨셉

매달 첫째 주는 어린이헌신예배를 드린다. 예를 들어 유년부 1,2,3학년의 경우라면 첫째 주에는 1학년들이 예배를 주관한다. 사회, 기도, 성경봉독, 찬양대, 새 소식, 새 친구 환영 등등 1학년 어린이들이 맡아서 한다. 2월 달에는 2학년이 3월에는 3학년이 맡아서 한다면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나 선생님들의 마음가짐도 새롭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드라마 예배라든가, 세 번째 주에는 찬양예배, 네 번째 주에는 교사 헌신예배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 3. 자매결연 맺기

예를 들어, 1학년 1반과 제1여전도회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하여 헌신예배라든가 드라마예배 때 오셔서 드라마설교 시간에 교역자의 지도하에 직접 드라마설교에 등장해 예배를 돕는 방법도 있겠고 찬양예배 때 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든지 다양하게 어린이들이 교회의 어른들과 예배 가운데 1년에 몇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면 그때만이라도 어른들이 오셔서 기도도 해 주시고 한다면 어린이부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리라 생각해 본다.

#### 4. 전도축제

1년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어린이 달인 5월과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을 전후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대적으로 베푸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외부강사님들도 초청하여 그야말로 어린이잔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양한 상품도 준비하여 그날 번호를 뽑아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5월 중 한 주를 선택하여 오전 11시에는 유초등부, 오후 1시에는 유치부, 오후 3시에는 중고등부, 오후 5시에는 청년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저녁 7시에는 모든 부서가 연합으로 어린이들과 온 교회가 그날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축제를 하는 것이다.

#### 5. 디베라 광야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던 것을 기억하자.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에서 '주어' 라는 동사가 미완료이다. 이것은 계속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경우 한 손에는 공과를 다른 한 손에는 간식을 준비하자. 이 뿐 아니라 그림 자료, 성경공부 자료, 등등 매주 마다 계속 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자. 그러다 보면 12광주리를 교사들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이며 교사들이 준비하는 풍성한 준비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교회 어린이부에 몰려들게 되는 것이다.

#### 6. 월별

- 1월- 교사임명, 친교의 시간, 신년교사모임, 겨울성경학교, 동계수련회, 윗놀이, 교사대학, 교사세미나, 반별대항 운동, 워십 경연대회
- 2월- 성경집중교육, 인물중심, 시간대별 정리,
- 3월- 고난에 대한 영상 감상,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 음식 대접하기, 부모님 초청, 자녀들 글 낭독, 부모님의 자녀향한 글
- 4월- 부활
- 5월- 어린이복음축제
- 6월- 성령강림절, 교사강습회
- 7월- 여름성경학교, 여름캠프
- 8월- 레크리에이션, 달란트 시장
- 9월- 전도특강, 전도실습

10월- 종교개혁주일, 신앙평가서작성, 찬양, 율동, 성시낭송 발표

11월- 추수감사절

12월- 성탄절, 성탄장식,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성탄발표

## 7.절기

어린이 부서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교회력을 바탕으로 절기를 찾아 풍성한 열매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기억에 남는 절기를 보내게 된다면 어린 시절에 느낀 감동이 평생 동안 가게 될 것이며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더욱 더 깊어지리라 생각한다. 어린이는 똑같이 중요하다.

## 8. 사랑의 기도노트

이제 교사의 손에는 성경, 찬송, 다음으로 사랑의 기도노트를 준비해야 하겠다. 어린 영혼에 대한 사랑은 말로는 한계가 있다. 그 사랑을 노트에 적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만일 우리 반 아이들이 다섯 명이라면 노트를 다섯으로 나누어서 각 장마다 맨 앞에 어린이들의 사진을 잘 찍어 붙인다. 물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진을 바꾸어 주면 더욱 좋겠다. 그 사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그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며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노트에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 조금이라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써 내려가다 보면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교사로서의 다짐도 한결 새로워지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노트에 우리 반 어린이들 가정의 경조사 등을 빼곡히 써 놓고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대해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며 더욱 선생님을 따르게 되리라 생각한다.

## 9. 여리고 기도 작전

이것은 매 주일마다 만일 우리 반 아이들이 다섯 명이라면 한 달 네 주를 생각한다면 한 달 하고 한 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매 주일 아침마다 교사는 한 어린이의 집으로 찾아가 데리고 나오는 방법이다. 물론 너무 멀면 어려운 일이다. 그럴 경우는 그 아이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온다면 정류장이나 역으로 마중을 나가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 할 것이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기도다.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게 되면 그 아이를 만나기 5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그 아이 집 대문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 짧은 기도 시간에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 어린이를 위한 기

도만 하면 된다. 그러나 대문 앞에서의 하는 기도시간 5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이 만을 위해 하는 기도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지난 일주일 간의 생활을 지난 주일 날 우리 반 아이들과 헤어지기 전까지 미리 아이들의 지난 일주일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바로 사랑의 기도노트에다가 써놓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일주일간 기도제목을 삼는 것이다. 기도장소가 정류장이나 역이라면 구석에 벽을 향해 조용히 고개 숙여 기도하면 된다.

## 10. 주일학교 구역운영

아이들끼리만 구역을 정하고 예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른 구역예배와 함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른 구역예배를 통상적으로 금요일 드리던 것을 토요일 오후로 옮겨 보면 어떨까 싶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그 지역에 모여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구역예배는 우리 반 아이들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교사는 매주 토요일 구역예배가 끝날 즈음에 우리 반 아이들이 속해 있는 구역예배 장소로 전화를 하여 아이들이 잘 참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무튼 구역예배는 어른들과 함께 드리고 그 후에 그 어린이 구역을 맡은 교사는 어린이들만을 따로 모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해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서, 게임, 만화, 성경인물 비디오 등을 준비해 주고 선생님과 교회 친구들과 주일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그 시간이 기다려지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놀고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무리 할 즈음에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교사가 기도해주고 끝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 아무 것도 없이 집에 가게 하지 말고 손에 뭔가 교사가 구역예배 자료를 준비하여, 예를 들면,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선생님이 반을 그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어린이들이 나머지 반을 완성하게 한다면, 아이들에게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인도 / 전도부 회계 김기성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310장 ..... 다같이  
기 도 ..... 서광교회 유태영 목사  
성경봉독 ..... 요 21:15~17 ..... 인도자  
설 교 ..... 사랑하는 자 ..... 사랑스러운교회 배만석 목사  
광 고 ..... 국내전도국장 황윤수 목사  
찬 송 ..... 315장 ..... 다같이  
축 도 ..... 설교자



찬송가 3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흑 밤에 흑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한복음 21: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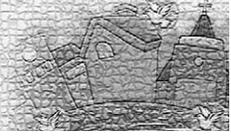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찬송가 315장(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뵈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 (요 21:15~17)



저녁예배 |

사랑스러운교회 배만석 목사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인도 / 전도부 서기 조종배 목사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286장 .....	다같이
성경봉독 .....	출 3:1~12 .....	인도자
설 교 .....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내 가슴에 .....	영양서부교회 박병석 목사
축 도 .....		설교자



찬송가 286장(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2.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3.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4.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 [후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출애굽기 3:1~12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내 가슴에 (출 3:1~12)



새벽예배 |

영양서부교회 박병석 목사

모세의 생애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마치 두부모를 잘라 놓은 것같이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이드로의 양 무리를 몰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당시 바로는 히브리인의 사내아이를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했고, 여아만 살리라 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3달을 숨겨 키우다가 갈대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여 데려다가 아들을 삼습니다. 유모로 들어간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그 심령에 히브리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저 고난 받는 백성이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은 이빨 사이에 기름이 흐르며 육미 봉탕 먹는 바로가 아니다” 피눈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장성하면서 자기 동족에 대한 고초나 학대를 보면서 뼈에 사무치는 분노심을 일으켜 결국 애굽인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살인한 것이 들통 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이드로의 양 무리를 몰고서 호렙산 기슭을 오릅니다. 그는 양떼들의 허기진 모습에서 굶주린 동족의 참상을 회상하며 탄식했으며, 광야의 찬 바람이 스치면 신음하는 동족의 한숨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늘에서 빗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동족의 눈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운 자를 불러 쓰십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학문이 뛰어 나가나 지식이 뛰어나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받아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 1. 이 세상의 불은 한때 뜨겁습니다.

모세는 정열의 사람입니다. 애국 애족하는 불이 그의 가슴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사람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면 그의 가슴은 언제나 불길기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내 가슴에 불이 동족애로 타오르든지, 내 열심으로 타오르든지 혹은 어떤 열사를 만나서 타오르든지

그 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타고 검정만 남습니다. 나의 열심의 불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때 뜨거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평생 합니다. 지금은 다 타고 검정만 남았습니다. 오히려 다 꺼져 가느라 연기만 냅니다. 그 열심 다 어디 갔나요? 요즘은 은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열심히 살아야 하니 대충 살고 싶은 거예요. 나답과 아버지하는 다른 불을 붙이다가 또다른 불이 그들을 태워죽였어요. 떨기나무의 불은 하늘의 불이요 이 불이 붙어야 삽니다.

19세기 초, 평양대부흥운동은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 불신자가 교회 와서 막 울더랍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몰려가기에 무슨 구경거리라도 있는가 해서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우니 나도 괜히 눈물이 나서 운다는 것입니다. 집회가 시작되니 그 사람 신자들 꼭 따라 하더니 큰 은혜 받더랍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속에는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불붙습니다. 자기정열, 자기 열심 가지고는 안됩니다. 받아도 힘드는데 안 받고 어찌합니까?

“연탄재 발로 차지마라 너는 한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성령의 불 맛을 봐야 예수 믿는 맛을 압니다. 그러나 불은 어디가고 형식만 남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사데교회를 주님이 보시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자다 했습니다. (레 6:13)에 “불을 끄지 마라” 단위에 불을 끄지 말고 계속 피우라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단에 기름을 붓고 주의 전에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울 갈보리선교교회 권사님 한분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난리쳐서 늘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했는데 불을 받았습시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급한 환자 병원가기 전 기도 부탁받으러 가다가 권사님 데려갔는데 기왕 같이 같으니 “권사님 기도 한번 하시죠?” 했더니 어떻게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 있던지. 그런데 기도가 끝나지를 않는다. 병원이 급한데 목사님 몸이 달아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인가? 환자가 일어나 앉아 눈물로 기도 받고 있더니, “예수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하는 동시에 “아멘” 하더니 병이 다 나았다. 할렐루야 그 뒤 그 권사님 신유 집회 인도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남편이 술 끊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붙여야 합니다.

내 열심의 불, 내 재주의 불, 내 힘의 불은 언젠가는 꺼지고 연기 납니다. 한때 대단한 분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 2.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사라지지 않는 불입니다.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불이 붙었다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놀랍게도 붙었으나 계속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습니다. 연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계속 타고 있지만 끄름이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소에는 일곱 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최상의 감람유를 붓고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겔은 해달의 가죽 그리고 염소가죽으로 덮고 그 속은 청색 홍색 자색실로 천사를 아름답게 수놓은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성소는 세상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곳은 어둡지 않습니다. 세기나 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세기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 촛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촛대의 불은 끄름이 없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이 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눅 12: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엘리야에게 불을 붙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재단에 불로 역사하셨으며, 솔로몬의 제물을 불로 흠향하셨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 할 때에, 그들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 3. 이 불이 오늘 우리 가슴에 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호렘산 가시떨기의 불이 모세의 가슴에 옮겨 붙었습니다. 놀랍게도 80세의 노인의 가슴에 불이 붙으니 430년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모세가 자기능력, 자기기술, 자기학문으로 히브리 백성을 인도 하려고 했다면 광야에서 벌써 열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호렘산 기슭에서 받은 성령의 불은 그의 가슴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이 데려 가실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

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 하였더라.”했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새 힘이 생깁니다, 이 불이 붙어야 생활이 밝아지고, 이 불이 붙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기술로 목회하고, 장로하고,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합니까? 내 기술로 하는 것 열 받으면 죽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 바울, 안브르스, 존 칼빈, 마틴 루터, 존 후스, 찰스 스펠진, D.L 무디, 김익두, 최봉석. 오늘은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은혜 까먹는 장소는 가면 안 됩니다.

까마귀 집 옆에 둥지를 튼 종달새는 언젠가는 까마귀 소리를 흉내 냅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전도를 통한 기독교 교육 기초 세우기  
**다음세대를 위한 세 가지 전도**

장지교회 홍승영 목사(극동방송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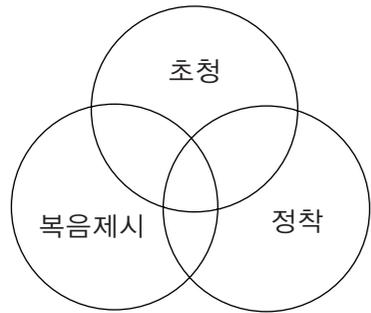


11월 16일(수) 오전 8:00~9:30 |

사회 : 전도부 총무 정창수 목사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지상명령은 성인과 학생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며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전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도에 최선을 다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는 전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략의 부재에서 오는 차이기도 하다.

흔히 ‘전도’ 라는 말로 표현되는 사역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둘째는 아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죄 사함을 얻도록 인도하는 사역이다. 이 두 사역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 두 사역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교회로 인도되고 복음을 받아들여더라도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교회로 인도된 사람이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초청, 복음제시, 정착’의 세 분야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다음세대 전도를 이러한 세 관점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켜 전도의 동역자로 삼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전도의 3구분

**1 초 청**

초청은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이다. 교회는 새로운 성도를 맞게 되며, 양육과 정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게 된다. 초청이 없이는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없으며, 기독교교육과정도 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청은 교회의 성장과 존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역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주일학교 부흥 세미나는 학생들이 찾아오기 좋은 교회,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은 전도에 있어서 초청의 측면을 강조한 전략이다.

### 1. 초청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

대부분의 교회학교는 효과적인 초청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앞이나 공원 등에서의 전도, 총동원전도주일, 일대일 초청 잔치, 친구 초청을 위한 달란트 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구체적인 사례들과 제안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바란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대상자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지 결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지 '다른 교회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과 '이렇게 하면 외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로 준비하면, 그 결과 단회적이고, 의무감에 시달리는 교육 프로그램들만 산만하게 실시된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청 대상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본 다음세대 이해

다음세대는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

#### ①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잃어져 있다(마 18:14).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은 그들의 영혼에 우선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학생들이 잃어진 영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적지 않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육체적 관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들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 ②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

성인들과 다르게 학생들은 대체로 성경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동의한다.

#### ③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쉽게 형성된다.

유년기일수록 학생들은 정의 개념이 강하다. 성인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는 수준의 타협된 정의관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④ 본성적으로나 행위에서나 죄인이다.

학생들이 성인들보다 순수하지만, 그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 죄성을 가진 죄인이다.

⑤ 영적기갈 속에 놓여 있다(암 8:11).

이 시대 다음세대의 위기는 물질, 환경적인 것 보다는 영적 황폐, 정서적 불안에 그 원인이 있다. 교회는 영적 필요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⑥ 자신이 무엇인가 잘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한다.

적절한 격려를 통해 다음세대는 교회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며, 훈련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

⑦ 이야기와 노래를 좋아하며, 감정적으로 쉽게 움직인다.

그러므로 다음세대의 전도와 훈련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일 필요가 있다.

⑧ 쉽게 사랑에 응하고, 쉽게 낙심한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다음세대의 감성은 메말라 있다. 특히 진실한 사랑의 표현에 목마르다. 복음에 채워져 있는 사랑은 다음세대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⑨ 주님을 위해 참된 결단을 할 수 있다.

유치 연령의 유아일지라도 적절한 복음 제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다.

⑩ 그들을 전도하면 그의 일생까지도 구원하게 된다(잠 22:6).

일반적으로 다음세대는 성인들보다 살아갈 인생이 길며, 그리스도께 드릴 시간도 더 많다. 한 어린이를 구하면 그의 일생까지도 구원하는 것이다.

### 3. 초청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제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① 우리 교회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으라.

대부분의 초청 전략은 대형교회에서 개발, 발전된 것들이다. 이러한 것을 작은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대형교회에서는 학교 앞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홍보한다. 이미 지역에 세워진 지 오래 되었고, 큰 건물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교회에 다니는 학생도 많이 때문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지역 학생들에게 위치를 설명하는 것조차 벅차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자기 교회 앞에서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②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교회의 규모와 전도자 인력에 따라 가능한 프로그램의 수와 역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리므로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꾸준하라.

초청을 시작해도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또 찾아온 학생들은 부모님, 가정환경 등의 영향으로 매주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일 년 이상 꾸준히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렵다.

### ④ 실제적으로 준비하라.

많은 교회가 전도지를 준비해서 나누어 준다. 그런데 그 전도지가 효과가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는다. 전도자들이 영적 위안을 얻는 전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⑤ 입체적, 협력적으로 준비하라.

초청하는 사람,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 정착을 돕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입체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전도할 때, 교회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

## II 복음제시

복음 제시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 때, 복음 제시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복음 제시는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1. 다음세대를 위한 복음 제시의 중요성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 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

복음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은 영?유아들에게도 동일하며,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반드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

#### ②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된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남(영적 재탄생)이라고 말한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학생은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어른 성도가 된다. 하지만 거듭남의 체험과 고백이 없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 제시는 학생들을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 선제적 과정이다.

## 2. 다음세대 복음 제시의 이해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덜 더럽혀져 있다(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② 의심이나 거절이 적다.

성인들과 달리 천국과 복음 진리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적절하게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자기 고집 등으로 거절하는 일이 적다.

### ③ 잘 결신한다(20명 중 19명).

성인들에 비해 의심 없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다. 통계에 의하면, 적절하게 제시된 복음은 20명 중 19명의 학생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였다.

### ④ 어른 전도에 비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든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결신자를 얻게 된다.

### ⑤ 그들은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일의 일꾼이 된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잘 양육된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중요한 일꾼이 된다.

## 3.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미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전도폭발훈련 본부'에서는 다음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복음제시문(복음 전문)을 준비해 놓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교회와 전도자들이 그 전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전도폭발훈련 한국본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복음제시의 개요를 사용하겠다(본 장의 맨 뒷면을 참조하라). 더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시범은 '전도폭발훈련 한국본부'의 홈페이지([www.eekorea.org](http://www.eekore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복음의 개요를 담은 찬양을 제시한다(총회 교육국 제공). 이런 찬양은 어린이들의 감성에 맞으며, 복음 제시의 개요와 영접 기도문을 외울 수 있게 할 것이다.

## 4. 구원 상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어려움들

복음을 제시하다 보면, 간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다.

### 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작은 죄의 심각

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의 죄를 밝히려고 들어서는 안 되며, 단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인식시켜 주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첫째, 구체적인 죄의 실례를 말해준다. 어린이의 삶에 있을 법한 죄의 실례(형제간의 다툼이나, 부모님 속 썩인 것 등)를 말해주고, 사소한 잘못으로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둘째,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씻음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 ② 수줍어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대상자

이것은 아직 전도자와 대상자에게 편안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또 부끄럽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조용히 귓속말로 대답하라고 권할 수 있고, 질문의 표현을 바꾸어 다시 질문할 수도 있다. 또 읽을 수 있는 전도지를 준비하여 함께 읽으며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부끄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 한다. 또 어떤 어린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대답을 속으로만 하기도 한다. 때때로 가족의 타종교 배경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믿음의 결단을 미루기도 한다. 교사는 그러한 원인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 준다. 잘 이해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 III 정 착

전도 현장에서는 흔히 ‘뒷문 닫기’라고 말하는 사역이 정착이다.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을 나눈다 해도, 그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지속적으로 믿음을 나누지 않으면, 다시 잃어진 영혼이 될 것이다. 정착사역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역으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다.

### 1. 정착을 위해 해야 할 일들

한 사람이 구원 받고 양육되기까지 기쁨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3\*7 원리로 정착을 강화하라)

#### ① 복음증거와 구원상담

만일 새 신자가 복음에 대해 미심쩍어 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문제를 느끼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대화하며 해결해 주도록 한다. 이 때, 전체 전문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각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며 부연 설명하는 것이 좋다.

### ② 개인적인 신상 파악 (학교, 친구, 가족, 신앙배경 등)

새 신자는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출석을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상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렇게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소개해 줄 수도 있다.

### ③ 심방 및 부모님과 교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의 보호와 영향력 속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인사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찾아가서 인사하거나, 전화 등으로 아이의 소식을 자주 전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 ④ 4주 이상은 토요일, 주일 전화 및 심방을 지속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만이 새 신자를 지속적으로 이끌게 된다. 적어도 4주 이상을 꾸준히 연락하며 평일의 교제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 ⑤ 예배 시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신앙적인 언어들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새 신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과 언어들이 낯설다.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안내하여 교회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 ⑥ 교회 내에서 일정한 섬김에 참여하게 한다.

몸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일정한 섬김에 참여해야 한다. 봉사는 작은 것이라도 꼭 하는 것이 좋다.

## 2. 효과적인 정착사역 - 바나바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중의 한 사람으로,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교회에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도 초청하여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다. 그들의 사역으로 안디옥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처음 얻은 교회가 되었다(행 4:26~29, 행 11:22~26). 바나바 사역은 이러한 바나바의 역할에 주목하여, 교회와 새 가족의 가교를 놓고,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소개하며, 함께 공동체와 섬김에 참여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바나바 사역은 교회학교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저학년의 경우는 교사들이 바나바의 역할을 맡고, 고학년의 경우는 직접 학생 바나바를 임명하되 교사가 권장하도록 한다. 바나바 사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신실한 바나바들을 양육한다.

바나바 사역은 그 섬기는 사람들(바나바)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양육하고 전문가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4~8주 정도를 진행한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더 길거나 짧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4주 이상은 되어야 좋은 효과를 얻게 된다.

③ 매주 3명의 성도를 새 친구에게 소개한다.

교회가 낯설지 않도록 교회의 중요한 성도들을 새 친구에게 매주 세 명씩 소개한다.

④ 주중 만남을 갖는다.

바나바는 연결된 새 친구와 주중에 전화 및 만남을 갖는다. 그 곳에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친밀함을 쌓을 수 있다.

⑤ 교회를 안내하고 교회의 여러 사역과 섬김에 참여시킨다.

새 신자가 빨리 정착하는 길은, 교회의 섬김을 함께 하는 것이다.

바나바 사역은 현재 많은 교회들이 시행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바나바 사역 연구원' 이나,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IV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 : 다음세대와 함께 전도하기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동역하며 진행되었고, 제자들은 전도자가 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제자훈련은 전도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학교의 제자훈련도 전도자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특히 현 시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청소년들의 바쁜 일정 등으로 전도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 때, 학생들을 훈련시켜 함께 전도하도록 하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함께하는 전도' 라고 부른다.

##### 1. 함께 하는 전도의 이해

함께 하는 전도는 반드시 필요한 전도 패러다임이다.

① 전도 현장이 변했다.

각종 범죄,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 등으로 전도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길거리에서 어린 이들에게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졌고, 아이들은 친구의 말에 더 잘 반응한다. 그러므로 학생

이 학생을 전도하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② 지속적인 돌봄에 유리하다.

교사보다 학생이, 다른 학생과 지속적으로 만나기 쉽다. 그들은 학교, 학원, 놀이터 등에서 함께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 바나바를 통해 새 신자를 잘 관리할 수 있다.

③ 함께하는 전도는 팀 전도이다. 팀 전도는 훈련과 교육의 현장이 된다.

예수님은 전도의 현장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하셨다. 주일학교 훈련도 전도현장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이런 함께 하는 전도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다. 또 전도자들은 자신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

## 2. 함께 하는 전도

교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다, 학생들을 통해 복음 전하는 것은 좀 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함께하는 전도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① 교사는 학생 전도자를 위한 기도 후원자이다.

교사는 학생 전도자를 양육하면서 그의 믿음과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② 교사는 복음 전도를 위한 시범자이다.

전도는 교실에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현장에서 실제 전도를 통해 익숙해진다. 교사는 학생 전도자에게 복음 제시와 초청을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돕는다.

③ 교사는 전도 현장을 위한 준비자이다.

전도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과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전도 물품도 준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되고, 직접 준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도자로 세워진 학생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④ 교사는 제자 삼는 인도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사는 진지한 측면에서 제자훈련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전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며, 동역자로서의 사랑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 3. 학생 전도자를 훈련하라.

전도자를 훈련하지 않으면 함께 전도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전도자를 훈련한다.

#### ① 선발하라.

전도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모두를 한꺼번에 훈련시키기는 어렵다. 우선 훈련받을 대상자를 잘 선정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야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받는다.

#### ② 팀을 구성하라.

전도는 현장에서 시범과 참여를 통해 훈련되므로 한 사람이 많은 학생들을 훈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명의 교사와 두 세 명의 훈련생으로 팀을 구성하여, 훈련 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관리한다.

#### ③ 교사 훈련이 더 중요하다.

학생 전도자들을 훈련시키지만, 교사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훈련하거나 전도현장을 인도할 수 없다.

#### ④ 훈련하라.

복음 제시 본문을 반드시 암기하도록 한다. 또 익숙하게 연습하고, 현장에서 직접 복음 제시에 참여하도록 훈련한다.

#### ⑤ 현장실습이 핵심이다.

아무리 복음제시 전문을 연습했다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장 실습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피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빨리 학생들이 복음 제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다음세대 복음 제시 요약-Kids' EE 제공

도 입	<p>1. “너는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p> <p>2. 만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니?</p>	
본	천 국	<p>1. 천국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롬 6:23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라고 했어.)</p> <p>2. 천국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 가는 것도 아니야. (엡 2:8,9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어.)</p> <p>주제전환 –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p>
	인 간	<p>1. 인간은 죄인이야.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 다.”라고 했어.)</p> <p>2.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마 5:48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 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여라.”라고 했거든.)</p> <p>예화 – 썩은 계란</p> <p>주제전환 – 왜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원하실까?</p>
	그 리 스 도	<p>1.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셔.</p> <p>2.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돼. (요일 4:8, 출 34:7 “하나님은 사랑이 시라. 그러나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라고도 했어.)</p> <p>주제전환 – 문제가 보이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를 보내심으로써 해결하셨어.</p>
	민 임	<p>1.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 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 (사 53:16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라고 했어)</p> <p>2. 무덤에 묻혔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사흘 만에.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거저 주고 계셔(요 3:16).</p> <p>예화 – 가르시아</p> <p>주제전환 –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p>
결 신	<p>1. 지금 예수님께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드리겠니? “사랑하는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 속에 저의 주님으로, 저의 구원자로 들어와 주세 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p> <p>2. 너는 만일 오늘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니?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또 성경에 보면 “누 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 셧습니다.”(요 1:12, 쉬운성경) 라고 했어.</p>	
양 육	<p>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해!</p> <p>양육-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p>	

# 복 음 송

## (너를 위한 천국)

J=140

홍승영

D G/D A/D D F#C#  
 너를 위한 천국 하나님 주신 선물 하지  
 Bm7 Em7 C A7  
 만 죄 있는 모든 사람 갈 수가 없어  
 D G/D A/D D F#C#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위한 보혈 나와  
 Bm7 Em7 C A7  
 나의 모든 죄 대신 해 죽으신 주님 영접하  
 G A/G F#m7 B7  
 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Em7 A D D7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G A/G F#m7 B7  
 내 마음에 들 어오셔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Em7 A7 G6 A7 D  
 내 구주와 주님 되어 주세요

총회교육개발원 집필자, 강사, 찬양작곡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전임강사,  
 국제전도폭발 훈련 강사, J C Factory 대표, CTS기독교TV 어린이설교 방송

## 제96회기 전도부 주요 사업

### 1. 도시 미자립교회 재정지원

- 1) 지원원칙 : 3회기(93~95)간 지원내역이 없는 등록교회, 1노회 1교회, 온라인송금.
- 2) 지원대상 : 행정단위상 '~동'으로 끝나는 주소를 가진 교회.
- 3) 지원서류 : [소정양식] 청원서 1부, 노회추천서(교회현황포함) 1부, 통장사본 1부, 주보 및 관련자료,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함.
- 4) 접수시간 : 2012년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함.
- 5) 지원과정 : 2012년 6~7월 중 심사, 8월 회기 말 일괄지급함.

### 2. 특수전도 재정 지원

-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탈북자, 병원 및 학원 등 특수전도사업에 온라인 송금하여 지원함(사회부관련 / 단체- 은퇴목사회 등과는 별개).

### 3. 총회전도부 주최, 노회주관 전도집회

- 1) 취지 : 주님이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 지역 노회의 전도 부흥을 위해 조력하는 한편, 노회 산하 미자립교회들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돕고자 함.
- 2) 내용 : 지역노회에서 주관(행사진행, 순서)하고, 총회전도부에서 강사추천, 미자립교회 지원함.

### 4. 제주 선교지 전도대회 [\*제3차 시행]

- 1) 취지 :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대사명은 오늘을 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천리 방방곡곡은 물론 복음화에 있어서는 선교지나 다름없는 제주 땅에도 전도와 선교가 생수처럼 솟구쳐야 하겠다. 이에
- 2) 1, 2차 전도대회 요약 : 1차(94회기, 120명 참가, 23교회 지원), 2차(95회기, 300명 참가, 19교회 지원), 노방/축호전도, 경로잔치 등 교회별로 1:1 실시함.
- 3) 내용 : 총회전도부에서 주최하고 제주노회가 주관하며, 제주지역 복음화를 위해 전도단을 파송한 참여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자비량 선교)으로 진행함.

### 5. 전도 정책개발

#### 1) 전도 정책의 시행

- 1)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한 멘토 발굴 및 연계
  - 교회 현장의 실제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교회, 선후배 목회자).
- 2) 되는 전도를 위한 좋은 사례 발굴 및 강사로 세워 세미나를 개최함.
- 3) 연령별, 지역별 다양한 전도 콘텐츠를 수집, 검증하여 소개함.

#### 2) 전도 정책 개발 연구

- 1) 정책연구원 제도를 정착시켜 국내전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물을 발표함.
- 2) 전도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 교수, 기관 실무자 등을 실제적으로 접촉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도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함.

## 제96회기 전도부 조직

부 장 이 석 원 목사  
서 기 조 종 배 목사  
회 계 김 기 성 목사  
총 무 정 창 수 목사

### 실행위원

(목사) 라계동, 이성렬, 정중현, 김종준, 박원규, 윤두태, 이효은,  
이용길, 나학수, 이정인, 김경운, 배정환, 노홍빈, 최금성,  
신현철, 정원영, 강능희, 송귀옥, 이상돈, 배재철  
(장로) 원영태

### 부 원

(목사) 김진웅, 이규왕, 박명훈, 조재근, 장영일, 신정희, 문기선,  
황상길, 서성진, 홍정표, 홍동명, 이태희, 오재업, 이인수,  
김용철, 장순직, 이원석, 신원호, 김경수, 김창수, 김병선,  
김진묵, 광정규, 송영수, 오세광, 김영복, 김종호, 정진섭,  
정영기, 안홍대, 이봉철, 이신현, 김영기  
(장로) 김용수, 임덕수, 김명진, 문건일, 강성재, 이용희, 이재운,  
이상현, 박영근, 서기영, 이창신, 김창선, 한승철, 명충길,  
김영돌, 신동근, 나상호, 홍남식, 한종일

### 국내전도국을 섬기는 이들

국장 황윤수 목사

차장 유혜숙 대리 오은총 주임 우재민 직원 이덕행 연구원 김태건



